

팬아시아 페이퍼 코리아(주)

### 국제 경쟁력을 갖춘 선진공장 실현

팬아시아 페이퍼 코리아 주식회사

팬아시아 페이퍼 코리아(주)는 1998년 12월 18일 한국 제1의 신문용지회사인 한솔제지, 유럽 제1의 신문용지회사인 노스케스 코그 그리고 세계 제1의 신문용지 회사인 아비티비콘솔리 데이터 드사가 공동 출자하여 아시아의 제1의 신문용지 회사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최고의 제조회사로서, 30억 아시아인의 생활 곳곳에서 숨쉬는 아시아의 문화를 담는 그릇으로 새롭게 출발하고 있는 기업으로, 세계 3위의 신문용지 전문 생산공장으로 발돋움 하고 있는 성장성이 기대되는 기업이다.



팬아시아 페이퍼 코리아(주)  
안전보건과장 송만수

이 회사는 새한제지공업(주)로 65년 1월에 설립하여 92년 10월에 한솔제지(주)로 새로 태어났고, 금년 1월에 팬아시아 페이퍼 코리아(주)로 밀레니엄 시대를 맞이하였다.

팬아시아 페이퍼 코리아(주)는 “인간존중”의 경영이념을 바탕으로 모든 업무에서 안전제일의 경영풍토를 조성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전 임직원과 가족의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데 가치를 두는 안전보건 초일류 기업으로 재해율 0.3% 이하를 달성하고, 화재사고 Zero화, 유소견자 10% 감소, 협력회사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목표로 최고 수준의 안전시스템을 확보하기 위한 2000년도 안전보건관리 방침을 정하여 국제 경쟁력을 갖춘 선진공장으로 실현하기 위해 전 임직원이 한마음이 되어 매진하고 있다.

다음은 목표별 주요 안전관리 활동을 소개하고자 한다.

제4회 세계환경의날 기념  
 ▼ 기업부문 대통령 표창수상

### 안전의식의 선진화

임·직원 및 협력업체 사원의 의식개혁 및 안전 실천을 위해 호남건설안전체험 교육을 전원 수료 조치하였고, 제반 운전보수에 있어서 안전최우선 준수를 위한 환경조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등 safety first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또한, 매월 3째주 금요일은 팀장 회의시 안전을 정례화 하고, 부분별 계획 및 실적을 협의하고, 안전보건 최근동향 및 최신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신속한 안전관리 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안전보건위원회를 활성화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임원, 각팀장, 안전staff, 공사감독자, 현장소장에게는 line stop 권한을 부여하여 불안정한 행위 및 안전조치 미비 등에 따른 위험요소 발견시 즉시 line 가동을 중단시킬 수 있도록 하는 등 안전에 관한 권한을 부각시키고 있다.

### 안전교육·훈련 내실화

형식적이고 틀에 박힌 안전보건교육에서 벗어나 공정 특성별, 계층별, 분야별 등 실질적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장 공정상 위험요소가 많은 관계로 외부 출입인원에 대해서도 교육 및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다.

교육은 체험 위주의 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비상사태 유형별 등에 대한 반복교육으로 몸에 밴 안전관리를 유도하고 있다.

### Fool Proof 확보

전문기관의 전문가로 하여금 주기적으로 안전관리 조직 운영에 대한 실태 평가 및 분석과 설비·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하므로써 보완조치를 하고, 최신 기술정보를 습득하여 현장에 적용시키고 있다. 또한, 안전방호장치의 지속적인 개선과 설비 증설 및 보완시 근원적 안전대책을 강구하는 등 발로 뛰는 현장관리에 주력하고 있다.



### 유소견자 감소

정기적 건강 상담 및 추적관리, 질환자별 사후 관리지침 보완, 목요검진 활성화 및 산업보건의 적극 활동, 전사원 건강자료 D/B화 및 전산화 실시, 작업환경 개선 전문인력 지속 양성, 유해 약품류 관리강화 등 사후 관리 체계를 재정립 시행하고, 난청환자 감소 방안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

### 협력회사 책임감 있는 안전관리 실시

당사 안전 STAFF부서, 관리부서, 협력회사 간 안전보건관리 책임과 권한 명문화와 무재해 운동 활성화 등으로 현업부서 중심의 안전관리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협력회사별 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유도하고 있으며, 각종 매뉴얼 및 사용지침 등을 정비하므로써 안전관리 체계를 재정비한다.

그 외 5C활동 활성화, 출입차량 허가제도 운영, 안전, 소방 관련 시설 적극적 보완 개선, 계절적 자연재해 예측관리 및 대책 강구 등 다양하고 현장여건에 맞는 안전관리를 하고 있다.

앞으로도 팬아시아 코리아(주)는 지금까지의 풍부한 경험과 숙련된 기술력을 더욱 배양시켜 21세기는 근로자의 안전과 복지차원까지 세계 최고의 자리로 올려놓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